



2017. 9. 7 새벽 성주 소성리,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며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강행!

## ■ 사드는 북핵 미사일 막는 데 무용지물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CBM) 발사를 빌미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이가 짧아 사드로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또한 막을 수 없습니다.

## ■ 사드 배치는 불법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 간 조약 체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한 조약을 체결한 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임시 배치'한 것이며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드는 이미 가동되고 있고, 부지 공사도 강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를 가동하고 부지 공사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정부 주장대로 사드가 '임시 배치'된 것이라면 가동도, 부지 공사도 중단해야 합니다.**

## ■ 사드는 백해무익-안보와 평화통일,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 등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시에 사드 기지를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위한 총알받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동북아 대결 구도 고착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이 완전히 가로 막히게 됩니다. 중국의 보복으로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한반도가 조선 말기처럼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美 B-1B 폭격기, 정전협정 후 처음으로 북한 영해 근접 비행  
北, '트럼프 발언은 선전포고, 美폭격기 날아오면 격추하겠다'

**한반도 핵전쟁 불러올 극한 대결 중단하라!**  
**한미연합연습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하라!**

2017. 9. 23 밤, 북한 영해 인접까지 진출한 미군 폭격기!



**대결 말고 대화!**  
**전쟁 말고 평화!**

북미 양국이 아슬아슬한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한반도가 언제 전쟁이 터질 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빈발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이에 맞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거나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한반도의 핵대결은 한층 격화 됩니다.** 남한의 핵보유는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합니다. 이미 미국과 러시아에 버금가는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한국은 지금보다 더 큰 안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동시에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쌍중단)하여 대결을 멈추고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북핵 포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시키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동시에 실현하여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통일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합니다.**